

2020 주일메세지

땅의 징조 - 한계를 넘어서 일어난 일

1. 하나님의 뜻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통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셨다. 이 말은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의미이다. 사람은 하늘의 뜻에 정렬된 질서있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창세기 1:7]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위 말씀은 하늘과 땅의 물이 서로를 그대로 비추고 있듯이 하나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분리된 사고방식이 아니다. [에베소서 1:10] 에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는 중요한 존재로 지음 받았다. 그래서 사람에게 땅을 충만하게 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 통일된 질서가 사람의 죄악으로 깨어졌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이었고, 이것은 '고통, 죽음'을 의미한다. 그때부터 땅은 병들었다.

[창세기 3:17-18]

17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18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인간의 죄악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 땅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인과관계를 성경은 분명히 한다. 즉, 땅의 상태를 보고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될 때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았다. 풍요와 번영이 있었다. (반대의 경우, 옥도가 황무지로 황폐하게 되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2. 계절을 알 수 있다.

(1) 세상의 해석만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마태복음 24:32-33]

32 "무화과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무엇인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우리도 세상의 해석과 관점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야 하는가?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해석과는 다른 시각을 갖는다. 무화과나무의 상태를 보고 여름이라는 계절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란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마지막 때에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징조들을 보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는 마지막 때의 계절을 알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통해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를 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도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단순히 그 사건만을 해석하는 이벤트적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2)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준비

요엘서에 기록된 크고 두려운 날, 즉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땅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고 아는 것이다. 메뚜기 떼와 황충들이 일으킨 경제적 재앙과, 그 뒤에 있을 전쟁의 경고를 통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

[요엘 2:1]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었으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나팔을 불러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준비하라 말씀하신다.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징조들은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됨을 부인할 수 없다.

3. 재앙에 대한 성도의 해석과 자세

(1) 성도들의 태도

성도라면 마땅히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영적 해석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해석이란? 성도의 태도 변화이다. 재앙이란 것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 불가항력적 일이다. 작은 일이 아닌 것이다. 재앙은 인간의 삶을 순식간에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한다. 이런 일들 앞에서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일상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재앙은 사람의 능력이 초월된 일이다. 이 앞에서 성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한 자세가 바로 재앙에 대한 성도의 인식과 태도이며, 이 자체가 영적 해석이다.

(2)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재앙에 대한 이해

마지막 때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성경은 말한다. 그런데 재앙의 수위는 결코 낮지 않다. 갈수록 증가되는 것이 특징이다. 잦아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예를 들 수 있다.

(3)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게 하신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시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누구의 시각으로 만들 것인가에 따라 영화의 내용이 달라진다. 성경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시각에서 풀어나간다.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보라. 하나님의 관점은 골리앗에 있지 않다. 제자들을 위협하는 풍랑을 보라. 예수님의 관점은 풍랑 속의 제자들에 있다. 로마의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을 보라. 하나님의 관점은 로마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었고, 교회에 있었다. 그 땅이 복을 받는 받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신다.

(4) 재앙의 성격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출애굽'이다. 재앙은 언제나 '심판'의 성격이 있다.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 어려움을 겪는다. 고통과 비탄함에 빠진다. 이런 일들이 축복인가? 아니다. 그러므로 재앙은 분명히 심판의 성격이 있다. 애굽에게 있어 재앙은 심판이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재앙이 갈수록 강해진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의 완고함 때문이다.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부인한다. 이 완고함이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성경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한다. 왜 심판받는가?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인간의 완고함 때문이다.

반면에, 재앙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신다.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겪게 하셨다. 출애굽은 재앙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목적은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다. 새 역사가 시작된다.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토양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4.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할 일

[역대하 7:13-14]

13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 성도들의 책임이다. 회개의 자리로 가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기도의 자리로 가라.

이 땅의 저주가 하나님의 형상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 잘못이다. 교회의 잘못이다. 우리가 기준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

(2) 공허의 마음으로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재앙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어려움이 일어날 때 가장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성도이며 교회이다. 그러므로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재앙을 바라보는 공허의 아버지 마음이다.